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 / 에베소서 5:1-6:9

요절 / 에베소서 5:8

1.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무엇을 본받기 힘써야 합니까(1)?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습니까(2)?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2. 성도들이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3)? 또 어떤 말을 삼가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4)?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까(5)? 우리가 왜 헛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까(6,7)?

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게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7.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3.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다릅니까(8a)?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8b)? 빛의 열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9)? 우리가 왜 빛의 열매를 맺기 힘써야 합니까(10)?

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4.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11,12)? 이를 책망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13,14)?

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5. 성도들은 무엇을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까(15)?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16)? 그러므로 오직 무엇을 이해해야 합니까(17)?

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6. 성도들은 술 취하는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18)? 그리고 성도들은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19,20)? 또 서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21)?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7.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22)?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23,24)?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 할지니라

8. 남편은 아내를 어느 정도 사랑해야 합니까(25)?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25b)? 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26,27)?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해야 합니까(28-30)?

25.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9. 결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31)?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32,33)?

31.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10.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6:1,2)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1.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1. 아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4)? 자녀를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4. 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12. 종들은 상전에게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 합니까(5-7)?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8)? 상전들은 왜 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까(9)? 이상에서 부부간, 부자간, 상하간의 윤리를 공부해볼 때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또 세상 윤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5.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리라 9. 상전들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